

협

회

소

식

본회, 회장단 회의 개최

지난 6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전동용 회장을 비롯한 3명의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노영한 전무이사가 최근 축산관련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우리 양돈농가에서 생산하는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단체와 언론이 가중되고, 정부는 HACCP(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제도를 도입하는 등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코자 했다.

한편 옥수수의 국제 거래가격이 톤당 153달러로 인상되면서 지난 6월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5% 전후한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 이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또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중에서 허가 업체의 사육상한선을 현행 모돈 1천두에서 2천두로 상향조정함과 대기업 참여금지 기준중 중소기업사업 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을 삭제한 내용 등에 대하여 '축산법의 입법취지가 축산업은 농민의 고유업종으로 도시 상업자본의 과도한 침투를 방지하여 농민을 보호함에 있으므로 개방화 시대에 작은 규모의 축산·농가가 육성 발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뜻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제출에 대해 논의했다.

그 외에 냉장육 유통기한 연장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간담회 일정과 닭고기 신문광고 물의에 대한 사과 및 해명절차를 보고 받았다.

본회, 격리조기이유(SEW)양돈에 관한 세미나 개최

양돈산업에 있어서 돼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들인 돼지의 질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서 사양관리의 전문화와 양돈 규모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이

세미나 진행 시간표

진행 시간	주요 행사 내용
09:00~10:00	접 수
10:00~10:20	개회식(인사, 축사)
10:20~10:30	휴식(식장정돈)
10:30~13:00	제1주제 발표
13:00~14:00	점심식사
14:00~15:00	제2주제 발표
15:00~15:10	휴 식
15:10~16:10	제3주제 발표
16:10~17:30	질의응답
17:30~	폐 회

점으로 세계 각국에서 양돈산업의 신기법으로 도입중인 격리조기이유(SEW: The Segregated Early Weaning)양돈기법의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 및 선진국의 운영실태를 알기 위하여 본회(회장: 전동용)와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가 공동주최하고, 농림수산부, 양돈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양돈진흥사업회, 축산신문 등 4개 단체의 후원으로 오는 7월 6일(목)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격리조기이유(隔離早期離乳; SEW)양돈의 효과」란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세미나는 미국의 무어맨(MoorMan)사 연구소의 그렌쇼우(Dr. Joe D. Crenshaw)박사가 「격리조기이유(SEW)양돈의 생산성과 실용화 방안」에 대해서, 미국 드블 엘(Double L) 그룹의 노브 보르첼딩(Norb Borcharding)씨가 「격리조기이유(SEW)자돈의 포육시설」에 대하여, 전서울대 수의대 교수인 박응복 박사가 「격리조기이유(SEW)의 원리와 현장 적용 예」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본회 세계양돈박람회 시찰단, 폭넓은 양돈산업을 견학

본회 세계양돈박람회 시찰단은 미국 디모인에서 미국양돈협회(NPPC) 주최로 매년 열리는 세계양돈박람회와 일리노이주 정부가 안내하는 양돈산업을 시찰하고 귀국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14일까지의 일정으로 견학을



마치고 돌아온 시찰단은 본회 지도부 정호풍 부장, 제2검정소 오하식 과장, 김영만 강화지부장, 김동환 안양시흥지부장을 비롯한 17명의 축산관련자들로 이뤄졌다.

세계 양돈산업이 총 집결한 세계 양돈박람회 참관과 미국의 최대 규모인 랜드레이스 목장, 양돈 연수원, 무어맨사 부속양돈장, 약품회사, 비육농장, 도축장 등으로 양돈산업 시찰을 다녀 온 정호풍 부장은 “기술, 자원, 제도, 교육정책면에서 농촌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을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시찰대원 모두가 다채로운 견학코스에 양돈 견문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시찰이 됐다”고 전했다.

정부, 95년 돼지능력검정사업 계획 승인

본회 제 1 검정소(소장 정숙근), 제 2 검정소(소장 김형균)에서는 지난 3월 23일 농림수산부에 승인 요청한 「95 돼지능력검정사업계획」을 정부로부터 지난 5월 31일 승인받았다.

양 검정소에서 승인받은 95년 돼지능력 검정사업계획에 따르면, 제 1 검정소의 경우 검정소 검정은 1,800두를 입식하여 1,260두를 경매하고 4,800두에 대해 농장검정을 실시할 계획인 반면 제 2 검정소는 1,848두를 입식, 1,284두를 경매하고 5,200두에 대해 농장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들 양 검정소에서 연간 총 13,648두로 검정

할 계획으로 월평균 입식두수는 제 1 검정소 150두, 제 2 검정소 154두를 각각 입식하여 제 1 검정소 105두, 제 2 검정소 107두를 각각 경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양 검정소에서 검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중 일부는 축산발전기금 보조금 138,400천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게 된다.

고려대 학생들 검정소 방문

지난 5월 26일 고려대학교 동물자원학과 흥기창 교수와 이 학과 학생 40여명이 본회 제 1 검정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 견학을 목적으로 등지방 측정방법 및 측정과정, 예비사를 견학하였다.

양평 양돈단지 준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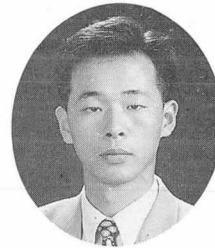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소재한 양평 양돈협업단지(회장 : 엄원섭)에서는 지난 6월 23일 관

내 기관장과 업계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준공식을 가졌다.

엄원섭 회장(본회 이사)은 본회 경기도 광주군 회원 10명과 뜻을 같이 하여 단지 조성 결의(91년) 후 강원도 접경인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에, 토지 매입 후 이를 위한 해외 시찰(92년)을 하고 사업 승인(93년)과 비료 공장 승인(94년)의 절차를 거쳐 시설을 완공하여 이번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10개의 단지로 구성된 양평 양돈단지는 6만평 부지에 총 50여억원을 투입, 청정돈육 생산의 기반을 갖추고 있고 완전 올인 올아웃 시스템의 현대화된 시설에다 분뇨는 완전한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공장이 갖추어져 있다.

본회, 신입사원 채용



이수철씨

본회는 지난 6월 7일 홍보부에 이수철씨를 새로 채용했다.

이수철씨는 경상대학교 축산학과를 오는 8월에 졸업할 예정이다.

분지캠페인

축산물내 유해물질 잔류를 방지합시다.